

조계종 기묘년 하안거 결제 범위

마음껏고 생각껏어 날로 새로워라

불기 2543년 기묘년 하안거 결제범의식이 5월 29일(음력 4월 15일) 조계 해인 덕숭 고불총림을 비롯한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돼 2천여 스님들이 3개월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과 4대 총림 방장스님들의 결제 범위 요지를 살핀다.



◇해암스님 ◇서응스님 ◇원담스님 ◇법전스님 ◇보성스님

조계종 종정 해암스님

雲水衲衣重七斤 九旬旣滿樂無端 釋迦彌陀入地獄 波旬羅漢坐金胎 韓足躡破地獄門 揮手截斷強羅網 山巒綠林浮雲白 松柏蒼翠鳳月清 猛虎雄飛大地闊 獅子哮吼天門開 會麼 一二三四五六七 遠山無限碧巒層

운수남자 옷 무게가 일곱 근이요 석달결제 적멸락이 한량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지옥에 들어가고 파순과 조달은 금대에 앉는다 발을 굴러 지옥문 차 부수고 손을 휘둘러 절경을 끊어버린다 산은 푸르고 뜬구름은 희도다 송백은 무성한데 풍월이 맑도다 사나운 범이 험하게 날으니 관아가 드넓고 사자가 고함치니 하늘문이 열리도다 알겠는가?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이여 먼산이 층층으로 한없이 푸르도다

고불총림 방장 서응스님

黑山前倒壓銀山 乾坤盛衰從自然 石火光中任殺活 清風颯颯拂乾坤 喝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結時結無結 解時解無解 結解本無空 一物本無移 ?

맺을 때에는 맺음이 없이 맺었고 풀 때에는 풀림이 없이 풀었네 맺고 푸는 것이 본래 공하여 없는데 한 물건도 본래 해제와 결제가 없다 (?) 한 물건은 무엇인고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洗心滌慮 日新又新 何以報德 忽悟水因 了事納僧 消一面 長連牀上 展脚臥 夢中 曾設悟圓通 香水洗來藕面皴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泥牛更不現 須彌在何處 月明山下路 松風振袈衣 飢食無粒飯 渴飲不濕水 高臥鹿盧頂 鼻息動乾坤

진흙소를 다시 볼 수 없으니 수미산이 어디 있는고 달 밝은 산아래 길에 솔바람이 누더기 날리네 배고프면 쌀알 없는 밥을 먹고 목마르면 젓지 않는 물을 마시네 높이 비로자나 이마 위에서 잠이 드니 코고는 소리 하늘땅을 뒤흔드네

종교법인법 제정 찬-반 팽팽

최근 발생한 만민중앙교회의 MBC 난입사건을 계기로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감시와 현황 파악의 대안으로 종교법인법이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방송(EBS)이 29일 밤 2시간에 걸쳐 종교법인법 필요성 여부와 종교문제 해결책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운승옹사(한국종교연구원 연구위원)는 발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단체가 7만6천여개에 이르고 종교인구는 전체국민의 43%에 달해 국민은 종교문제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단체는 3백60여개에 불과해 종교단체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종교법인법 제정이 한국종교단체의 건실한 활동에 도움을 주어 종교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불필요한 법제정으로 종교활동의 제약을 가져올지 종교법인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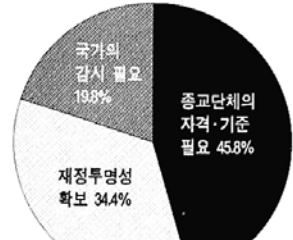
◇ 5월 29일 EBS-TV가 개최한 '종교법인법-문제해결의 열쇠인'의 열쇠인 난상토론 모습.

찬 성

기성종교 보호·육성 길 열려 해답(각화사 주지)

기성종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유사종교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양성화할 것인지 또는 차단할 것인지를 장치가 필요하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신종교, 소수종교에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해 건전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등록 또는 허가하는 것이므로 종교행위에 대한 억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 적용 단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법 제정의 취지가 종교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건전한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찬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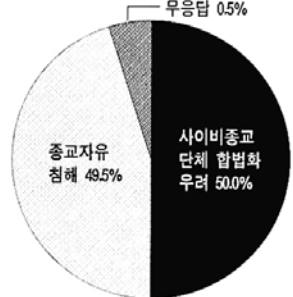
반 대

국가의 종교단체 간섭 우려 류종민(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법이 갖는 위헌성 즉, 종교행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해 해산한 곳은 옴진리 1곳뿐이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지 모른다는 우려로 적용하지 않았다.

종교법인법을 시행할 경우 종교단체를 국가가 인종 또는 허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종교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종교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종교단체 재정투명성 확보

김중서(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너무 폐쇄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종교법인법이 생기면 정기적으로 재정과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종교단체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종교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보다 더 큰 조직은 없다. 재산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수많은 종교조직의 재산은 교단 사회 국가의 공공자산이다. 그런데 주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종교단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이비종교 법적 검증 가능

용태영(변호사)

종교가 공해중에서도 대형공해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교역자가 신종교주이 되고 있으므로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종교는 계속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다. 종교가 제기능을 다하려면 종교단체의 재산, 시설물등이 투명화되어야 하므로 종교법인법에 의해 투명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형사법에 저촉된 종교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교단의 돈을 개인돈으로 여기는 교역자는 신성할 수 없다. 사이비 종교도 등록하여 국가가 충분히 검증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종교계는 백화제방현상을 보이고 있다. 암자하나 지어놓은 교주가 있는가 하면 종교가 만능으로 오인되고 있어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때문에 종교법인법에 의한 여과가 필요하다.

외국의 종교법인법

일본은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18만4천여 개의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95년 12월 현재). 종교법인법의 설립은 관할관청에 법정의 형식과 인준요건을 구비하면 가능하다. 관할청은 종교법인이 공익사업 이외의 위법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법인의 활동이 반공익적일 경우 활동정지명령 또는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뉴욕주 등 서구에서도 종교법인법이 있지만 일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 종교청이 있어 따로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법인제도를 두지 않고 민법상(한국)의 (재단 또는 사단) 법인의 지위를 준용해 종교단체의 헌법상 '종교(활동)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사이비종교 합법화에 악용

박찬성(기독교총연 사이비대책위 총무)

한 종교가 지배종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중요시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는 기독교문화, 일본은 불교가 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종교법인법 시행이 가능하다. 자칫 사이비종교의 합법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법인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 각 종교는 내부의 법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종교단체의 재정투명화를 위해 종교단체를 법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종교계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종교계의 자정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이비종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계법의 철저한 적용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회문제가 되는 종교문제는 근본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종교문화 급선무

김형성(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기초종교를 보호하자"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없애자" 이런 뜻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두가지로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종교를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바람직한 종교문화를 이룰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이비 척결을 위해서라면 종교법인법을 새로 정할 필요없이 기존의 민법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공신으로 인한 가장 파괴도 마찬가지다. 민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는 질문에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국민의식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개미귀, 거북이, 꼬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리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각권 21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학승·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절한 사랑과 이별, 재수가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가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길진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난 스님 인연록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지리에 있게 했다 (전2권|신국판|각권 21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